

■ 학회 동정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 2019년 상반기 소식

김 철 수

1. 제8차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 국제학술대회 성료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회장 길혜령 영남대 교수)는 2019년 5월 18일(토)~19일(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에 소재한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백주년기념관에서 “Joyce and Technological Culture”라는 제목으로 제8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의 회원들과 미국과 중국, 대만, 일본의 학자들, 그리고 조이스와 아일랜드 문학에 관심을 가진 많은 학자들과 일반 청중들이 학회에 참석하였다.

이영심 교수(충무, 한국외대)의 사회로 시작된 제1부에서는 길혜령 교수(회장, 영남대)와 줄리언 클레어(Julian Clare) 주한 아일랜드 대사가 각각 환영사로 학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조이스 연구의 권위적인 학술잡지인 *James Joyce Quarterly*를 발행하는 털사대학교(The University of Tulsa)의 로버트 스푸(Robert Spoo) 교수가 기조강연자로 초청되어 “James Joyce’s *Dubliners* and the Law”라는 제목의 강의를 하였으며, 뒤이어 상해국제경상대학(Shanghai University of

The 8th International James Joyce Conference in Korea

Moderators: Youngshin LEE (Secretary-General, Hufs, Korea)
Chid-woo KIM (Editor of JJK, Chonju Univ., Korea)

09:30-10:00 Registration
10:00-10:30 Welcoming Remarks
The Program KJ, (President, Yeungnam Univ., Korea)
Julian CLARE, (Ambassador of Ireland)

MORNING SESSION (Moderator: Youngshin LEE)

10:30-11:00 Keynote Lecture
Robert SPOD (Prof. of Iowa, USA)
"James Joyce's *Ulysses* and the Law: Writing on the Back of the Law"

11:30-11:40 Presentation 1
Seema FENG (PhD. of Seoul, Korea)
"Communications in *Ulysses* and *Finnegans Wake*"

11:40-12:00 Discussion
Khaem NAM (Dong Nam Univ. of Science & Tech, Korea)
Taeun MIN (Chonnam Natl Univ., Korea)

12:00-12:30 LUNCHEON & BREAK

AFTERNOON SESSION (Moderator: Chid-woo KIM)

13:30-13:50 Presentation 2
Li-ring TSENG (Nat'l Taiwan Univ., Taiwan)
"Unity and Difference in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13:50-14:10 Presentation 3
Eishiro ITO (Waseda Univ., Japan)
"Joyce in the Machine/Re-Joyce in the Digital Humanities"

14:10-14:30 Presentation 4
Sungjin JUNG (Chungnam Univ., Korea)
"Encountering Game Bosses in Joyce's 'An Encounter'"

14:30-15:00 Discussion
Sangsook KIM (Jeonju Univ., Korea)
Sudgye SON (Yeungnam Univ., Korea)
Youngjae LEE (Pohang Univ., Korea)

15:30-15:45 COFFEE BREAK

15:30-15:50 Presentation 5
Kunliang CHUANG (Nat'l Tsinghua Univ., Taiwan)
"Aesthetic Equivalence, Untranslatability and Creativity in Translating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into Chinese"

15:50-16:10 Presentation 6
Pingta KU (Taipei Tech., Taiwan)
"Schizo-Lucia on 'Jungfrau's Messongebuch': The Techno-Thanatopolitics of (Mis)Diagnosis"

16:10-16:30 Discussion
Seonhee SON (Hankyong Univ., Korea)
Kyungsook KIM (Yeungnam Univ., Korea)

16:30-17:20 General Discussion
17:30: Closing & Dinner

TIME & DATE : 1000 AM - 600 PM, MAY 18 (SAT)-19 (SUN), 2019

VENUE : R#4 6002, BLDG# 310(CENTRAL HALL),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HOSTED BY: THE JAMES JOYCE SOCIETY OF KOREA
SPONSORED BY CHUNGANG UNIVERSITY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의 세이머스 펡(Séamus Feng) 교수가 “Defamiliarization in *Ulysses* and *Finnegans Wake*”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후 남기현 교수(서울과기대)와 민태운 교수(전남대)가 각각 1부 발제에 대한 토론을 맡았다.

점심식사 후 계속된 오후 세션에서는 김철수 교수(부회장, 조선대)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국립대만대학교 (Nat'l Taiwan University)의 리링 쉥 (Li-ring Tseng) 교수(“Being and Difference in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일본 이와테현립

대학교(Iwate Prefectural University)의 아이시로 이토(Eishiro Ito) 교수(“Joyce in the Machine/ Re-Joyce in the Digital Humanities”), 그리고 중앙대학교의 장성진 교수(“Encountering Game Bosses in Joyce’s ‘An Encounter’”)가 발표하였고, 김상욱 교수(경희대), 손승희 교수(안양대), 그리고 이영규 교수(연세대)가 토론을 맡았다.

휴식시간 후 속개된 오후 두 번째 세션에서는 대만 逢甲大學(Feng Chia University)의 장건량(Chuang Kun-liang) 교수(“Aesthetic Equivalence, Untranslatability and Creativity in Translating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와 타이베이 기술대학(Taipei Tech)의 핑타 구(Pingta Ku) 교수(“Schizo-Lucia on ‘Jungfrau’s Messongebuch’: The Techno-Thanatopolitics of (Mis)Diagnosis”)가 발표한 후 최석무 교수(고려대)와 김경숙 교수(안양대)의 토론이 이어졌다.

조이스의 작품 속에 내재된 기술문명의 흔적과 영향을 살펴보고자하는 의도로 개최된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총 5개국 6명의 학자들이 발표에 참여하여 작품속에 나타난 기술문명의 주제 뿐 아니라 조이스 연구의 ‘기술적’인 문제도 함

게 탐색하며 토론하였고, 예년과 다름없는 뜨거운 토론들이 계속되었다.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일반 회원 등 약 30명이 참석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조이스를 연구하는 전문 학자들 뿐 아니라, 서울의 중앙대학교와 광주의 전남대학교에서 매월 1회씩 진행 중인 조이스 작품 독회(*Ulysses*와 *Finnegans Wake*)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고 있는 다양한 전공과 직종을 가진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함으로써, 세대와 공간을 아우르는 조이스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다.

(조선대)

※ 제8차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 국제학술대회 사진



2.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 독회 소식: *Ulysses* Again!

지난 2018년 1월에 김경숙 교수(안양대)가 I권 5장(ALP)을 마무리하면서 *Finnegans Wake* 독회가 잠정 종료되고, 다시 『율리시스』(*Ulysses*)의 독회가 재개되었다. 학회에서는 이를 통해 뒤늦게 독회에 합류한 회원들에게 독서를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같은 작품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재직 중인 최석무 교수가 “텔레마코스”(Telemachus) 에피소드를 강의하였고, 4월부터는 전은경 교수의 발제로 두 번째 에피소드인 “네스토르”(Nestor)를 통해 조이스의 역사관을 탐구 중에 있다. 5월 국제학술대회를 무사히 마친 후 6월 22일(토)에 두 번째 시간을 가졌다.

평균 10~15명 정도 참석하는 독회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작품의 오디오 파일 청취와 전은경 교수의 발제, 그리고 작품의 부분 부분에 대한 참석자들 사이의 질문과 토론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방학 중에는 냉방시설이 중단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오후 두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조이스에 관심이 있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독회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다음 모임 7월 19일(금))



필자 소개

길혜령

University of Alabama에서 러시아사 전공 석사학위 취득(1995). 영남대학교에서 “The Vision of Nation in the Colonial Empire: Colonial Representations in Conrad and Joyce”로 영문학 박사학위 취득(2004). 현재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 영제국의 식민지 배경 소설, 특히 조이스와 콘래드 작품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함. 대표 논문으로 “Conrad’s Undying Hope of the Polish Nation: Western Ideal and Eastern Reality,” *Mosaic* 39.2 (2006)과 “Soap Advertisements and *Ulysses*: the Brooke’s Monkey Brand Ad and the Capital Couple,” *James Joyce Quarterly* 47.3 (2010)이 있으며, 공저로 『조지프 콘래드』(2012)가 있음. hrkil@yu.ac.kr

김소연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석사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박사 수료. 크리티컬 리터러시, 페미니즘, 제임스 조이스 작품에 관심이 있으며 현재 제임스 조이스의 작품과 여성비평에 대한 연구 진행 중. groove0504@korea.ac.kr

안명덕

전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 학위 논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고백소설에 나타난 자아 정체성 문제.” 2차 세계대전 이후(Postwar) 영국소설이 갖고 있는 형식적 특성과 문학적 감수성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nada1179@hanmail.net

전신화

Texas A&M에서 “Allegories of Modernity, Geography of Memory”로 박사학위 취득(2012년). 현재 인천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교수로 재직중. 주요 관심사는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식민주의 작가 연구, 현대 영국소설, 아동문학, 생태주의 비평 등. seejeon@inu.ac.kr

조성란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에서 Professor Neil Schmitz 지도하에 *Historical Trauma and the Women on the Cross(road): Readings in Modern Women Writers of Diaspora*로 박사학위 취득 (2003).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글로벌커뮤니케이션 학부 영미문화 전공 교수로 재직 중. 주요 관심사는 버지니아 울프, 포스트휴머니즘과 현대영미 소설, 문화이론과 문화번역. scho@khu.ac.kr

최석무

University College Dublin에서 Professor Declan Kiberd의 지도하에 James Joyce and Deagnlization: A Postcolonial Study of Ulysses로 박사학위 취득(1998). 충북대학교 영문학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에서 교수로 재직중. 대표논문 Joyce's Representation of Ireland as a Partner in the British Empire(*The Wenshan Review of Literature and Culture* 12.2) 외에 조이스 및 아일랜드 작가에 관한 다수의 논문 출판. smchoi@korea.ac.kr